■ 현장과 시각 ■

손학규 공천개혁 희석되나

홍행기
정치부 차장

"획일적인 틀에 가둬놓고 일도양단, 마녀사냥식으로 특정그룹을 배제하는 것은 선진 민주정치가 아니다"

22일,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가 취임 후 첫 방문지인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물갈이하라는 뜻은 잘 알지만, 특정 현역 그룹을 획일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한국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천혁명을 통해 신당을 쇄신하려는 의지가 희석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반문에 대해서는 "틀에 가둬놓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천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성숙한 표현을 쓰자"고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쇄신하고,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 강조했다. 하지만, 회견장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는 '원론적인 얘기'로만 해석됐을 뿐 '변화와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성숙한 표현, 품격있는 정치"를 외치는 손 대표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주인이 없는 신당의 대표로서는, 신당의 주축을 이루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단숨에 깨뜨리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광주지역 현역 의원도 "물갈이론은 어느 총선에서나 나왔던 얘기"라며 "현역 의원이 있는데 다른 인물을 공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물갈이론'을 깎아내렸다. 신당에 기반이 약한 손 대표로서는 큰 폭의 물갈이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섞인 전망도 내놨다. 같은 당 소속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인사들이 공천 받을 수 없는 이유도 거론했으며, 억울하다는 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많은 법을 만들어냈고 지역구 활동도 활발히 했다"며 "언론과 친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은 일을 해냈다"며 섭섭해 했다. 한마디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당연히 재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물갈이'를 단행하려는 손 대표의 앞을 가로막고 주춤거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논리일 것이다.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현역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하지만, 자신들이 의원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참여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다.

현역의원 물갈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호남은 민심의 지표가 되는 지역이다. 지역의 민심을 왜 모르겠나?"라고 답하던 손 대표에게서 한 가닥 정치개혁의 희망을 봤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손학규의 공천개혁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redplane@kwangju.co.kr

'BBK 특검' 김경준 첫 소환조사

DMC 특혜 분양·도곡동 땅 실소유주 수사 등 본격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22일 김경준씨를 소환하면서 네 갈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처음 불러 그 동안 기록 검토 수준에 머물던 1팀(문강배·이건행 특검보)의 BBK 의혹과 2팀(김학근·이상인 특검보)의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주일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8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약한 고리' 찾기에 전념했던 특검팀은 검찰의 수사결과 중 미심쩍어 보이는 부분을 우선 추려내 김씨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김경준씨는 BBK 사건, 다스와 도곡동 땅 사건, 검찰의 회유 협박 사건 모두 관련이 있다"며 "조사가 하루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사기간 40일 중 1주일을 소모한 특검팀으로서는 참고인 신분인 김씨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처지다.

정 특검은 김씨가 제기한 BBK 수사 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우선 수사 대상에서 일단 미뤄놓고 파견 검사도 배치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 특검은 21일 이를 담당할 4팀(최철·이건행 특검보)에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된 만큼 BBK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의혹 규명만 미뤄두는 게 비현실적이고 자칫 '검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3팀(김학근·최철 특검보)은 그동안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김씨 소환을 계기로 정 특검이 지휘하는 4개 수사팀이 모두 정상 가동됨에 따라 '이명박 특검팀'이 남아 있는 30여일의 시간 안에 의혹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역삼동 '이명박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결과에 위축되지 말아야 한전, 혁신도시 이전 변화 없을 것"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광주상의 조찬 강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광주·전남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며 "대선 패배로 인한 소외감에 위축되지 말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합심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22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한 광주경제포럼에 참석한 장 장관은 '21세기 광주·전남이 나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농업·건설업 위주로 구성된 광주·전남의 취약한 산업기반은 조만간 한계상황에 봉착할 우려가 높다"면서 "FTA 확대, 중국·인도 급부상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유념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광주지역의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반면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과도한 복지비 지출로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의 현재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에 비유했다.

장 장관은 "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기업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다른 지역의 광산업 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하고 산·학·연·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개최되는 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 광산업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장 장관은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장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 이뤄지게 되므로 한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골동품·미술품 수천점 확인

삼성특검, 에버랜드 창고 이틀째 수색…'행복한 눈물' 못 찾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2일 오후 2시5분께 삼성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의 이순동(60) 사장(전략기획실장 보좌역)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삼성의 비자금을 총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 임원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장은 삼성전자 홍보팀을 창설, 책임자로 시작해 20여년 간 일하다가 홍보팀장을 맡아 삼성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는 데 공헌한 인물로 평가되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임원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차명계좌 명의자'인 이 사장을 상대로 계좌 개설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관리 의혹과 차명계좌 운용 여부, 비자금 사용처 및 전략기획실의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략기획실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관리 및 불법 경영권 승계, 정·관계 로비 등 핵심 의혹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주요 임원들이 근무 중이다. 이형도(65) 삼성전기 부회장도 이 사장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이 사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학수 부회장(전략기획실장)과 김인주 사장(전략지원팀장), 등 핵심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삼성가(家)의 미술품 창고'로 알려진 용인 에버랜드 인근의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실시했다. 특검팀은 전날 3시50분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8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천 점의 미술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다시 현장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 중 일부가 남아 현장을 지켰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특검측은 전했다. 창고에는 고미술품과 골동품, 현대 미술작품 등 수천 점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으며, 특검팀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포장 상태로 보관된 그림을 일일이 개봉해 비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의심되는 그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측이 비자금을 조성해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90억원),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100억원) 등 고가 미술품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빌 클린턴 너무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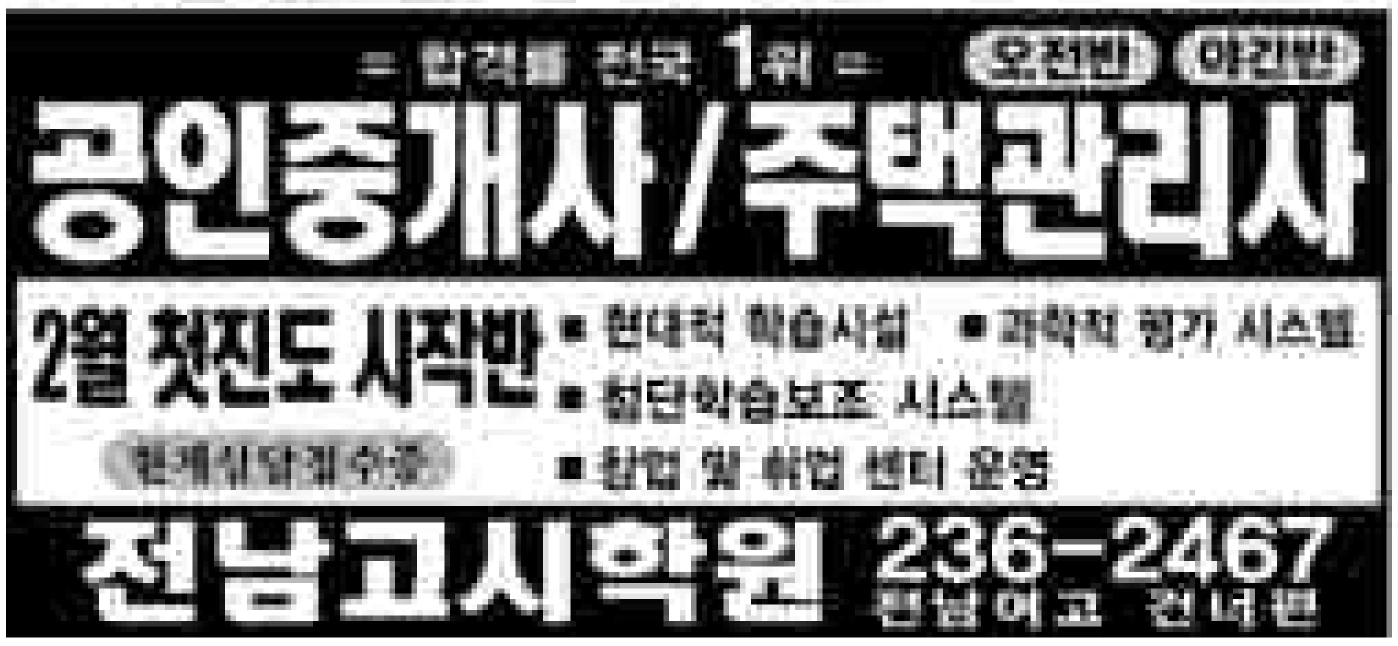
ABC 방송 인터뷰서 맹공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21일(현지 시각) 미 ABC 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오바마는 이날 ABC의 한 아침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내의 당선을 위해 너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내가 대통령 후보로서 적격임을 널리 알리려는 그의 충정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나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선 과정에서 정직함과 솔직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그렇지 않으면 경선 후보들은 수많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냉소주의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아내의 백악관 입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오바마는 또 자신이 공화당 소속 고(故)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추앙한데 대해 "네바다주 코커스(당원대회)에 공화당 지지자를 끌어 들여 표를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눠 "레이건은 리처드 닉슨이나 빌 클린턴 등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른 방법으로 미국의 진로를 바꿔 놨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이날 머틀비치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에서 오바마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언급하자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서 정면 대응을 피했다.

힐러리 선거 참모인 하워드 울프슨은 "오바마 의원이 네바다 주 코커스 패배에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